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환경부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적정 분리배출 및 보관여부 확인 등 분리수거 적정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등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홍보·계도 기간(9월~10월)을 두어 대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분리수거용기 설치 등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 일선 시·군·구의 1차 점검('05. 12월)을 바탕으로 환경부, 시민단체 합동으로 2차 점검('06. 1월) 실시 예정이다.

분리수거제도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계에서는 비교적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은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부적정 등 위반사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국민들의 가정생활에서의 분리수거의식이 학교·직장 등 대외활동과 연계·정착되도록 유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량 확대에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2004년 지도·점검 결과 903개의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이 분리수거함 미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 부적정 등 위반사태 발생함.(2003년 880개 시설)

환경부는 이번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생활계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의무대상시설의 분리수거체계 개선과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 테마형 산업기술 이동체험관 개관식 개최

‘차세대 주역’ 어린이들이 첨단기술을 친숙하게 느끼고 가까이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산업기술 이동체험관’ 테크노 스쿨버스(Techno School Bus)가 운행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함께하는 ‘테크노 스쿨버스’는 지난 8월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 후 전국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어린이들이 첨단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테크노 스쿨버스(Techno School Bus)는 2대의 대형 트레일러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전국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학생들이 따로 로봇을 찾아갈 필요 없이 이 버스에 올라타 로봇을 구경하고 첨단 기술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테마형 산업기술 이동체험관’이다.

2대의 대형 트레일러는 각각 전시관과 영상관으로 꾸며지며, 전시관은 로봇 기술의 세계, 로봇의 역사 및 작동원리, 생활속의 로봇으로 꾸며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영상관은 로봇영상물을 상영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로보(Robo)’라는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한다.

아울러 테크노 스쿨버스 주변은 야외 놀이터, 로봇 포토존, 키트공작소 등의 다양한 체험교육공간을 하나의 놀이공원처럼 ‘로보파크’로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즐기면서 기술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테크노 스쿨버스는 오는 9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만날 계획으로, 각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이 홈페이지(www.technoschoo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베트남 자원환경부 환경협

## 력단,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지난 8월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환경보호청장(Dr. Tran Hong Ha)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협력단을 초청했다.

베트남 환경협력단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아 환경선진국을 견학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견학 프로그램 중 한국이 첫 번째 방문 국가로 공사에서는 방한 기간 중 모든 일정을 지원했다.

베트남 환경협력단은 방한 기간 중 공사의 지원에 따라 환경부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폐기물 재활용, 독성폐기물 처리 등 선진 환경정책을 접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와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그동안 베트남 자원환경부 제1차관의 공사 방문(2002년), 베트남 자원환경부 초청 공사 환경협력단의 베트남 방문(2004년) 및 베트남 환경공무원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정책·기술관련 교육 실시(2005년) 등 양국간 환경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공사는 지난 2004년 베트남 자원환경부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전처리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과 기술인력 훈련, 워크샵, 견학 등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을 협의하였으며, 베트남 생산성본부 및 건설자재연구소와도 폐기물관리 및 리사이클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공사는 지난 6월에 한·베환경협력강화 및 폐기물분야의 효과적인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하노이시에 소재한 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 내에 공동 사무소를 개설했다. 앞으로 공사는 하노이시 고품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재활용 기반시설설치 컨설팅, 베트남 고품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 한·베 공동기술개발 연구 등의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 및 베트남 자원순환정책 지원 등 환경협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자원환경부의 공사 방문으로 환경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우수사례집」발간

환경부는 산업 활동의 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모아 감량 우수 기술 및 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200톤 또는 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감량화 대상사업장 1,175개소를 평가한 결과 제품 1톤을 생산할 때 폐기물 발생량은 '03년 50.4kg에서 '04년 42.7kg으로 7.7kg(15.5%) 감소하였으며, 공정개선 등으로 417천톤(1.7%)을 사전감량하고, 발생된 폐기물 23,863천톤 중 20,317천톤(85%)을 재활용함으로써 그 성과가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환경부는 대상사업장 중 사업장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씨제이(주) 등 국내 12개 사업장과, NOVEM사 등 해외 4개 감량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 경영방침과 성과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동종 업종 및 폐기물 감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선정된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 포상시 우선순위, 재활용육성자금 등 정부자금의 우선지원, 검사의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우수사례집은 기업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유관 협회·조합,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환경부 및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종합정보(wastezero.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9월에 관계기관,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는 감량화 확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업장 표창 등 시상식과 우수사례발표회, 감량화 가이드 및

기법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미 개발완료('05. 7월)된 전자·화학업종 사업장폐기물감량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환경친화기업 회원사 및 협력업체 10,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지역별로 실시하여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건교부, 백두대간에 이은 전국 국도에 생태이동통로 확대 설치

건설교통부는 야생동물 생태이동통로를 '06~'10년까지 전국에 36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214개소의 기존시설물을 보완한 생태 이동통로를 만들어 도로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하는 생태이동통로는 환경운동연합부설 시민환경연구소가 2003. 8월~2004. 7월까지 1년동안 전국의 생태이동통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우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연결성회복이 가능한 36개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생태이동통로 설치를 위한 생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세부적인 위치선정을 완료한 후, '06년 상반기부터 166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 경기지역 4, 강원7, 충청 6, 전라 9, 경상 10개소 등 총 36개소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에서는 '00년부터 '03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하여 1차적으로 백두대간상에 도로개설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된 10개소에 대하여 생태통로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기존시설물(수로, 통로암거)을 보완하여 생태이동통로로 정비하는 214개소도 금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59개소를 연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09년까지 나머지 155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지침제정, 생태이동통로정비 및 신설사업의 추진 등 가능한 주변과 빠르게

어우러지는 조경을 최대한 식재하고, 또한 인공적인 느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형습지 조성 및 초지 등을 설치하고, 기존 백두대간에 설치한 생태이동통로를 모니터링 해서 점차 개선·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차세대 지능형 항만기술개발 본격 착수

1만2000 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이내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항만기술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착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 채장원 박사)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대학교, 6개 민간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내년 7월 11일까지 3차년도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012년이면 세계 주요 항로의 주력 선박으로 운항이 예상되는 1만2000 TEU급 이상 초대형선은 시간당 3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안벽시설, 항만장비, 야드시스템, 게이트 및 터미널 운영시스템 등 통합적인 기술개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개발사업은 ▲양현하역과 환적전용부두의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안벽 ▲시간당 80개 하역이 가능한 컨테이너 크레인 ▲야드 트랙터보다 3배정도 생산성이 있는 자가하역이송장비(ALV) ▲창고형 컨테이너 적재 시스템(HSS) ▲지능형 운영시스템 및 무정차 게이트를 개발해 국내 항만에 적용은 물론 해외 항만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 사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오는 2009년까지 약 340억원(민간 50억원 포함)을 투입해 한국해양연구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방식으로 추진된다.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시설자금 2,800억원 추가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8월 10일부터 총 2,800억원 규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체들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리 2~3%대의 저리로 최소 8년부터 최대 15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6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이 5월에 조기 종료되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여 결정되었다.

추가자금 중 2,000억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800억원은 올해 이미 지원이 완료된 총 7,770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신청자가 포기하거나 추천이 취소된 자금으로 충당된다.

공단 류기준 자금지원실장은 “이번 추가 자금지원으로 금년도 지원규모는 지난해의 5,304억원에서 84%가 증가된 9,7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국제유가가 작년과 비교하여 30%이상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다, 고유가로 인해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를 통한 산업체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이라고 정부와 기업이 인식을 함께 한 결과이다. 추가 지원된 자금 중 1,500억원은 VA(자발적협약),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에, 500억원은 집단에너지사업에 지원되는 등 총 2,000억원이 에너지절약효과가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집중 지원되며, 나머지 800억원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고유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 환경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연찬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8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 및 정화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과 함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연찬회」를 공주대학교에서 「제4회 강의 날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담당공무원, 전문가, 관련업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부처 합동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설명과 전문가 발표 및 지자체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사례 발표로 진행되며 관련업체의 자연형하천정화기술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특히,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토론했다.

또한, 하천정비시 환경성 제고 방안(KICT 우효섭박사)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발전방향(KIST 이재성박사)에 대한 발표와 자연형하천으로 거듭난 충청남도 연기군의 월하천과 전라남도 장성군의 황룡강에 대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연찬회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각 부처별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함께 향후 하천 정비 및 정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상호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연찬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부처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하천정비 및 정화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의 하천 정비 및 정화사업이 서로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 하천관리 통합지침(가칭)」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통합지침 마련 등을 위한 용역 추진중(2005. 6~10)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여성전문가 기용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최근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환경보건안전부장(국장급)에 처음으로 여성 연구관인 정영희씨를 임용했다.

신임 정영희 부장은 지난달 7월 새로 출범한 국립환경과학원(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 외부에서 응모한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전문가를 물리치고 발탁될 정도로 위해성 평가 및 환경보건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바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방형 발탁을 통해 5개 연구부장 직위 중 40%에 해당하는 두 자리에 여성 연구자가 부장 직위에 올랐다.

이에앞서 자연생태부 오경희 부장, 환경노출평가과 최경희 과장까지 포함해 부장 2명, 과장 1명이 여성 연구관으로 보임된 상태이다. 정영희 환경보건안전부장은 “그간의 다양한 연구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최근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위해요인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연구해 국민건강과 환경보건의 기틀을 다지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펼쳤다.

한편 정영희 부장은 지난 77년 7월 연구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요보직(폐기물 화학과장, 수질미생물과장, 미량물질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달한 성격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후배들을 이끌어 왔다는 후문이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지난번 부·과장급 내부 직위공모와 일련의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국민과 함께 연구 잘하는 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기초를 마련,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산자부 기술표준원, 유해 중금속 검출 분석 방법 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생활의 필수품인 자동

차, 전기·가전제품, 완구류 구성품중 비금속재료에 함유돼 있는 유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검출 분석방법 10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 KS규격으로 제정하고 ISO에 신규 규격으로 제안한다.

그 동안 기술표준원은 EU 환경규제에 우리나라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중금속 분석방법 표준화사업을 추진해 금속분야 중심과 국제규격(ISO)를 식도입, 70여종의 KS규격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이번과 같은 비금속분야 중금속 분석기술개발은 세계 최하다.

이번에 제정된 규격은 플라스틱, 접착제, 유리소재 등에 함유된 중금속을 검출하는 분석방법으로 자동차, 전기 가전제품의 40%인 6만종에 해당하는 부품과 완구류 등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료전처리가 간단하고 분석시간이 짧으면서 정밀, 정확도가 높아 KS규격이 제정되면 관련 제품의 친환경성 및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김익수 소재부품표준과장은 “최근 EU,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서 자동차, 전기가전제품, 포장제 등에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 함유를 금지하는 강력한 환경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이들 제품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방법이 없어 제품 생산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없어 생산제품의 유해중금속 함량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관련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자동차, 전기가전제품 및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 12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마시는 500개 학교에 최첨단 정수시설 만들어 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하수를 마시는 물이나 급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초·중등학교 500 곳에 최첨단 정수시설을 설치해 준다.

공사는 지난 2003년 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4년 충남지역 3개 학교(논산 광석, 당진 북창, 서천 기산초등학교)에 최신 막여과 기술을 적용한 정수장치를 시범설치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정수장치를 통해 만들어진 물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수질분석한 결과, 일반세균 및 대장균의 99.9% 이상, 질산성 질소의 70% 이상이 제거된 것으로, 탁도는 수질기준(0.5NTU)보다 20배 이상 양호한 0.02NTU 이하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100개 학교를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6월 설계를 마쳤으며, 연말 설치완료로 목표로 정수장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오는 2007년까지는 전국 500개 학교에 정수장치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정수장치 설치 후, 수질 모니터링, 방문점검 등 시설운영이나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어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지하수를 급식용수나 마실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1,896개교로서 최근에 진행된 지하수의 오염으로 일부 학교에서 불안정한 수질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학교에서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탓으로 원수에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미생물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곤란한 형편이다.(수질부적합 원인의 약 80% 정도는 질산성 질소 및 미생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소독시설과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정수처리장치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학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적,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형편이다.

## 환경부, 2/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환경부는 '05. 2/4분기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1,190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1,434개소를 적발하였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6%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소), 사용중지(218개소), 조업정지(169개소), 개선명령(383개소), 경고 등(441개소)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619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행정처분 병과 595개소)조치하였다.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태림포장공업(주), 에스비씨(주), 부산산업사, 내촌숫가마 등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인주종합철강, 한샘(주)제4공장, (주)새서울경금속 등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하였으며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쌍용양회공업(주) 광양공장 등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2/4분기의 전국평균 단속율은 41.7%이며,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54.4%), 대전(47.3%) 충남(46.6%) 등의 순이며, 울산(23.3%)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위반율은 전국 평균 4.6%이며, 부산(6.5%), 광주(6.3%), 경기(6.0%)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1.6%), 울산(2.6%)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고발건수는 619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311건으로 전체 대비 50.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분석해 보면 '05년 1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정일섬유, (주)새서울경금속, (주)호반크리너, 에코서비스코리아(주), 영풍제지(주), 성림유화(주) 등 총 21개소로 나타났다. ◀